

남북 경협 확대할수록 통일 비용은 감소한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통일' 만큼 강하고 지속적인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은 입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간 보수든 진보든 통일을 민족 최고의 과제로 여겨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실제 통일이 됐을 때 들어가야 할 비용, 즉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에 근거한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의 경제 수준 향상을 위해 한국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추측이 통일 논의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그렇다면 과연 통일 비용은 얼마나 될까? '시사저널' (sisapress.com, 2018. 05. 11)은 남북 경협이 확대될수록 통일비용은 감소한다며,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북한의 핵 도발 등으로 잊혀졌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통일을 하기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를 없애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독과 동독의 통일 사례에 비해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문제를 다루는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통일이 된 이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통일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일비용이란 남북이 통일된 뒤 일정 기간 동안 양측의 격차를 좁히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드는 비용을 말한다. 즉, 북한이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는데 필요한 남한의 투자비용으로 볼 수 있다.

■ "남북통일 비용, 10년에 걸쳐 2,134조 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월10일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자산관리사 유리존 SLJ에셋 매니지먼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통일 비용이 10년에 걸쳐 2,134조 원(최소 2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란 추정을 내놨다. 애널리스트들은 1989년 동서독 통일 당시 상황과의 비교 분석을 근거로 위와 같은 액수를 추산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5월11일 영국 런던에 있는 유라이존 SJZ캐피탈의 스티븐 켄과 조아나 프라이에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한반도 평화 정착 비용이 향후 10년에 걸쳐 약 2,144조 원(2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반도가 비핵화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평화유지 비용은 통일 비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두 연구원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를 가정해, 북한 경제 개발에 투입돼야 하는 금액을 추산했다.

한국의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5년 통일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남북 관계를 유지할 경우 통일 완성 기간은 50년이 걸릴 것이며,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면 39년, 전면적 협력을 할 경우 34년이 걸린다고 예측했다. 북한이 전면 개방을 결정하고 남한과 국제사회가 대규모로 북한에 투자하는 등 남북한 전면적 교류 협력이 2016년부터 이어져 2026년에 통일이 되고, 북한 주민의 소득이 남한의 66%까지 된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통일비용은 2026년부터 2060년까지 34년간 2,316조 원(연평균 68조 원)으로 추정했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경우 통일 비용은 2026년부터 2076년까지 50년간 4,822조 원(연평균 96조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에 식량이나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2026년부터 2065년까지 3,100조 원(연 8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고,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포함한 경제적 투자 등 전면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되면 2060년까지 2,316조 원(연 68조 원)으로 그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통일이 되기 전 남북 교류 수준이 활성화될수록 통일비용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교류협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일 비용도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교역증대·분단비용 절감...국민 GDP 8위로 상승할 것

지나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통일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1,000조 원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1,000조 원의 몇 배에 달하는 북한의 광물이 개발되고, 2,500만 명에 달하는 북한주민이 남북 통합 경제에 편입되고, 한반도 내 5,300만 명의 노동인구가 생기는 긍정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광물 자원 잠재 가치는 적게는 3,200조 원에서 많게는 1경 1,700조 원까지 추정된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통일 편익의 추정 규모도 크다. 통일 편익은 통일이 되면서 얻게 되는 편리와 유익을 말한다. 이산가족 문제 해소, 분단 비용 감소, 경제통합에 따른 이익 등을 들 수 있다. 남북 대치 상황으로 지출하고 있는 군사비와 남북 대결로 소비하고 있는 외교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결합해 개발하거나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을 늘리고 물류망을 연결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줬던 '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정상회담에 따른 한국 증시의 잠재적 결과와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주식 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는 2015년을 통일 시점으로 가정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전까지 1조4,000억 달러(약 1,500조 원)였던 GDP는 5조5,000억 달러(약 5,900조 원)로 증가하고, 1인당 GDP는 2만9,000 달러에서 7만9,000 달러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5,000만 명에서 8,000만 명 가까이로 늘는 것으로 돼있다. 분단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청년들이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통일의 경제적 순편익은 통일 비용의 3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통일비용은 북한 경제가 붕괴하면서 흡수통일론이 부각된 이후부터 실의를 따지기 위해 대두된 논리다. 통일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지출되던 분단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계산상 현재 우리 국민 GDP의 6~6.9%를 투자하는 동시에 분단 비용에 투자하는 4~4.4%는 아낄 수 있다. 따라서 순수 통일 비용은 GDP 2~2.6%가 든다. 대한민국 GDP를 1조5,000억 달러로 치면 300~390억 달러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